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28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충만 받아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합니다!
5. 성경통독: 제 6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53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7/12(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강해)
7. 감사: 오늘 맛있는 점심은 유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8. **차세대 사역**: 차세대를 위한 성경공부에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2,875.00)

십 일 조: 김반석,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우 조은미, 조우형 이혜련, 조윤경.

감 사: 강의승 한동주, 김반석, 박동희 중님, 송희복 송순란, 유혜영,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28호 2023년 7월 9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갈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갈이
- ♣ 송영 Spiritual Song 다갈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민연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복음 8:31-36 다갈이
- 설교 Sermon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조병우 목사
- 봉헌찬송 Hymn 42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갈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갈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기도회

밤 8:00 (ZOOM)

새벽 기도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민연 권사	조병우 목사	유혜영 권사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우영자 권사	박종님 전도사	송순란 집사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는 데 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미국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이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자유를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의 권리만을 이기적으로 고집하며 다른 나라들의 복지를 외면한 채 공정치 못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이 같은 개인적 자유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권리에 대해 귀 기울일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포도밭의 주인”이심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악한 야생포도가 아닌, 사랑과 순종의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사 5:2). 우리에게 권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권리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고집대로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복종하는 데 있습니다.

On this Independence Day, we in the United States are reminded again of the liberties we enjoy. For these we should be deeply grateful. But sometimes we take them for granted, displaying little concern for those who are not so abundantly blessed. We are becoming a nation of individuals who selfishly insist on our own rights, making unfair demands on others and not thinking of their welfare. Worst of all, in this clamor for personal freedom, we hear very little about the rights of God. We should recognize that He is the "Lord of the vineyard." He expects us to produce the fruits of love and obedience instead of the wild grapes of ingratitude and wickedness (Isa.5:2).

As we thank God for our rights, let's not forget the rights of God. True freedom is not in having our own way, but in yielding to God's way.